

'삼귀의' 빠알리어로 노래하다



정율 스님이 5집 '부처님께 귀의하는 노래'를 발표했다. 사진은 내지에 실린 기도하는 스님과 어린이들.

정율 스님 5집 앨범 발표

정율 스님이 5집 '부처님께 귀의하는 노래'를 발표했다. 삼귀의를 빠알리어로 표현한 이번 앨범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께 돌아가 의지하고자 한다'는 삼귀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율 스님은 "우리나라 말로 익숙해져 있는 삼귀의를 빠알리어로 표현해 삼보에 귀의하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현재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부처님 당시처럼 빠알리어로 찬탄을 하고 있다. 스님은 "각 나라마다 언어의 표현 방법이 다르고 2500년 전

당시와 지금의 사람들도 다르지만 삼보에 돌아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다 똑같은 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앨범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전했다.

스님은 신심이 절로 솟아나 삼매속에 빠지듯 이 노래의 곡을 썼다고 한다. 그리고 사부대중의 웅장함을 강조하고 싶어 E&I 중창단과 함께 음반 작업을 했다. 스님은 "중창단과 함께 부르는 중저음의 곡이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찬탄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음악을 듣고 잠시 부처님이 살아 계셨던 그 시대 속으로 빠져 들어가 보면 어떨까?

정혜숙 기자

만봉 스님 유업 있는 불화박물관 개관

강원도 영월 위치...총공사비 84억원 투입

신원문화재단(이사장 이용국)이 건립한 만봉불화박물관이 5월 28일 개관했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에 건립된 만봉불화박물관은 대지면적 7,687㎡에 연면적 1,853.95㎡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총공사비가 84억원 투입되었다. 신원문화재단은 "불화 단일 박물관으로 국내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실시에 만봉 스님 작품을 비롯해 우리나라 전통불화 작품 200여점이 전시됐다. 또한 개관식과 더불어 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높이 30m에 달하는 웅장한 만봉사 대법당과 무게 8톤에 달하는 만봉사 범종도 공개했다.

만봉불화박물관 최복숙 관장은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계승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단순히 불화 전시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불교 미술 콘텐츠 프로그램 구축과 수행문화체험, 불화 관련 학술세미나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만봉 스님의 유업을 잇는 만봉불화박물관이 5월 22일 개관했다. 사진은 내빈들의 테이프 커팅 장면.



템스 제작자 부명 스님



템스는 6월 11일~8월 11일까지 조계사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이 공연은 지난해 '이뤄꼬'를 재구성했다. 사진은 출연 연기자들이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

6인 6색의 신명나는 두드림 '템스' 공연

불교 사물놀이를 펼치는 너버벌 퍼포먼스

두들겨라 행복이 찾아온다. 경쾌한 타악, 화려한 퍼포먼스로 신명나는 세상의 문을 열어줄 힐링 너버벌 타악공연 템스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6월 11일~8월 11일까지 조계사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개성과 도독 6명이 산사에서 펼치는 템플스테이를 배경으로 불교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템스는 지난해 부명 스님이 제작했던 공연 '이뤄꼬'를 새롭게 재구성했다. 너버벌 퍼포먼스라는 기본 콘셉트와 사찰을 배경으로 했다는 공통점 등 몇가지 요소만 빼고 극의 상당부분이 바뀌었다고 한다.

"지난해 공연을 올리고 좀더 체계적인 공연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보는 공연이었고 혼자서 대본 쓰고 연출하고 제작하다 보니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죠. 특히, 아마추어 연기자들을 데리고 합숙훈련하면서 사물놀이를 지도해 공연을 올렸는데 만족할만한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었죠. 하지만 올해는 전문성을 강화해 전문 연기자와 감독을 섭외하는 등 좀더 단단한 극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지난 '이뤄꼬' 공연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는다. 더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는 큰 가르침을 얻었기 때문이다. "지난 공연 이후 많은 분들이 공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 충고들을 바탕으로 공연을 완전히 새롭게 꾸몄죠. 작년 작품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관객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스님은 기독교의 마리아마리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처럼 불교계에도 불

2012년 '이뤄꼬' 재구성 8월 11일까지 조계사에서

교를 대표하는 공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찰을 대표하는 사물의 소리를 대중에게 알려져 불교문화를 대중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공용극 감독이 연출을 맡아 막을 올리는

템스는 권력, 식탐, 색욕, 미녀, 비관녀, 묵언수행자 이렇게 여섯 명의 캐릭터로 대표되는 주인공과 산사의 주지 스님이 등장한다. 사찰에 숨겨진 금동불상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절을 찾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고 불교 목어 윤관 범종 목탁 죽비와 같은 범구뿐만 아니라 빗자루 낫그릇 등 사찰의 모든 생활도구가 약자가 되어 신명나는 공연을 펼친다.

부명 스님은 "산속에서만 머무르는 가르침, 사찰 안에 갇힌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속에 녹아드는 문화로 불교가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했다"며 의지를 전했다. (070)8827-010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낙산사가 빚어낸 예술魂의 자취

춘천박물관 '관동팔경II-양양 낙산사' 전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최선주)은 6월 30일까지 조계종 낙산사와 공동으로 '관동팔경 II-양양 낙산사' 특별전을 연다. 강원 문화의 원형과 특징을 밝히고자 시작된 관동팔경 특별전은 '강릉 경포대'에 이어 두 번째다.

절경을 자랑하는 관동팔경 낙산사에는 신라의 의상과 원효, 범일 스님의 설화가 전한다. 또한 낙산사 관음보살에게 태수의 딸과 사람이 맺어질 수 있도록 간청하던 조신(曹信) 스님 이야기는 춘원 이광수의 소설 (꿈)의 모티프가 되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낙산사를 중심으로 시문, 기행문학, 기행사경도 등과 같은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한 왕실과 관련된 유품 및 자료와 함께 관음신앙의 성지인 낙산사의 불교미술에 대해서도 폭넓게

소개했다. 주요작품으로는 김홍도의 '낙산사도',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 사리구, 성화 13년명 입안(立案), 겸재 정선의 낙산사도, 여성 탐승객 금원 김씨의 호동서락기, 고려 수월관음도 등이 소개된다.

특히, 단원 김홍도(1745-1806 이후)가 정조의 명으로 그렸다고 전하는 '낙산사도'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으로 최근 낙산사 복원 때 이 작품이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고 전한다.

여성 탐승객 금원 김씨의 '호동서락기' (조선 1850년,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는 14세 때 남장을 하고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유람하고 쓴 기행문이다. 그녀는 이후 최초로 여성시동인회 삼호정시사(三湖亭詩社)를 만들었다고 한다. 성화13년명 '입안立案'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품으로 조



춘천박물관은 6월 30일까지 낙산사와 공동으로 '관동팔경 II-양양 낙산사' 특별전을 연다. 그림은 김홍도의 '낙산사도'

선 1477년(성종8) 강릉도도호부에서 낙산사와 상원사에 발급한 문서(立案)다. 예종의 원찰인 낙산사의 소속사찰 규모와 승려를 대대로 유지할 것을 명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낙산사는 이곳을 방문하는 시인묵객들에게 오랫동안 무한한 영감과 시심을 생수케 하는 창작의 원천이었다고 한다. 그들의 정취와 예술혼을 이번 전시에서 느껴볼 수 있을 바란다. (033) 260-1521

정혜숙 기자

창사 40주년 기념 양초 할인판매!!



수입양초는 박스에 Made in Korea를 인쇄할 수 없습니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중국산 재생초와 비교할 수 없는 국내산 최고급 양초이며 견고한 상자에 포장되어 안전하게 배송됩니다.



- 밀 대 (70개입) @ 90,000원 (3박스 이상)
- 돈타레 (40개입) @ 90,000원 (3박스 이상)
- 원기둥 (20개입) @ 90,000원 (3박스 이상)

▲ 한박스는 100,000원씩 판매 됩니다.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할인가 800 (100벌 이상)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할인가 170 (600개 이상)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정가 1,000원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정가 1,600원
	할인가 700 (100벌 이상)		할인가 800 (200개 이상)		할인가 170 (600개 이상)		
수자영가웃	정가 9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가 1,6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가 1,600원	
	※크기 대 6.5×24cm 소 5.3×18.3cm		※크기 15.5×19cm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한지점 위패(대/소)/인쇄점용 위패(대/소)	정가 대 30,000원 / 소 27,000원 (100개)	한지·인쇄점용영가웃(남/여)	정가 27,000원 (100벌)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할인가 대 @270원 / 소 @240원 (1000개이상)		할인가 @240원 (1000벌이상)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H. P 011-554-2988 인터넷전화. 070-7425-051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